

## Kant의 범주의 선험적 연역(2판)에 관한 연구

박 종 식\*

### Untersuchung über die 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 bei Kant

Jong - Sik, Park

#### 목 차

Zusammenfassung	2) 제2실험
1. 서론	4. 2판의 범주의 연역
2. 범주의 선험적 연역의 구조와 문제점	1) 1단계 증명
3. 1판의 범주의 연역	2) 2단계 증명
1) 제1실험	5. 결론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s handelt sich bei dieser Aufsatz um die 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 d.i. der reinen Verstandesbegriffe. Die transzendente Deduktion der Kategorien ist das Kernstück in "Kritik der reinen Vernunft". Solche Funktion, welche den verschiedenen Vorstellungen in einem Urteile Einheit, und auch der bloßen Synthesis verschiedener Vorstellungen in einer Anschauung Einheit gibt, - welche heißt der reine Verstandesbegriff. Kant nennt diese Begriffe Kategorien. Sie gehen a priori auf Objekte. Kategorien sind die notwendige Bedingung für mögliche Erfahrung. Alle Menschen müssen eine Art Erkenntnisfähigkeit a priori haben. Das sind Kategorien. Kants Problematik ist, wie unsere Erfahrungen oder unsere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강사(철학)

Erkenntnisse möglich sind, woraus sie entstehen. Kant kritisierte Skeptizismus und Dogmatismus zu jener Zeit, denn jene Philosophien konnten nicht dieses Problem richtig lösen. Kant dachte, daß auf solcher Weise sie das Problem nicht lösen konnten. Kant erst nahm die beiden Philosophien ein und dann schuf ein neues System der Philosophie, das Transzendental-Philosophie heißt, eben durch die berühmte kopernikanische Wendung. Dem System nach gehen Begriffe a priori auf Gegenstände der Anschauung überhaupt. Das Wort 'a priori' in Kants Philosophie bedeutet 'von allen Eindrücken der Sinn und vor aller Wahrnehmung, von aller Erfahrung unabhängig'. Also niemals entspringen Kategorien a priori aus Erfahrung. Kant nennt alle Erkenntnis transzendental, die sich nicht sowohl mit Gegenstände sondern mit unserer Erkenntnisart von Gegenständen überhaupt, insofern diese a priori möglich sein soll, überhaupt beschäftigt. Daher ist es sehr wichtig, zu wissen, wie reine Begriffe a priori Rechtmäßigkeit eines empirischen Gebrauchs zu Gegenständen überhaupt haben, d.i. wie diese Begriffe(Kategorien) sich auf Objekte beziehen können, die sie aus keiner Erfahrung hernehmen. Kant nennt die Erklärung solcher Art transzendental Deduktion. Also ist der Zweck dieser Untersuchung ist eben den Prozeß der transzendentalen Deduktion zu erklären.

## 1. 서 론

이 논문에서 필자는 칸트의 철학에 관념론이라는 단순한 표찰을 붙이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식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칸트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필자는 칸트의 철학이 일반적인 비판가들의 생각처럼 결코 소박한 의미의 관념론이 아니고, 오히려 철저한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있었다는 것을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분석하면서 논증하고자 한다. 20세기 후반에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경험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표현되는 견해에 의해서, 즉 경험도 이미 이론과 개념 체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자체로 중립적인 객관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해서, 전통적 의미의 경험론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이 논문은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칸트적 경향을 - 인식의 주관과 객관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하는 입장, 특히 개념 체계를 통해서 인식이 수행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식론을 정당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칸트 철학의 핵심인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철저히 탐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칸트를 이해함으로써 현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적 모색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것이다. 칸트의 철학은 너무나 풍부한

철학적 사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철학적 태도를 배움으로써 현대적 입장을 새롭게 조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현대의 여러 철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망의 실마리를 얻기 위한 한 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칸트의 텍스트를 엄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칸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범주의 선형적 연역의 구조와 문제점

칸트 당시의 경험론의 극단적 형태인 회의론과 관념론의 극단인 독단론에 의해서 야기된 형이상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학문의 안전한 길을 확보하고자<sup>1)</sup> 칸트는 우선 이성 자신의 능력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자연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 자극받아서 자연 과학의 위대한 업적이 무엇에 기인하는가를 살펴보고서, 그 방법은 대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한 기준을 자연에 적용시키는 방법임을 밝힌다. 그리하여 칸트는 철학에도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것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이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 인간의 인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시간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논리적 의미에서 경험에 선행해서, 어떤 작용이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다면 경험으로부터 모든것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는 지식의 필연성과 객관성 및 보편성이 결여되어 학문의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비하고 있는 이 선천적 요소는 경험에서 독립된, 경험에 논리적으로 앞선 것으로, 바로 감성의 형식으로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오성의 작용인 순수오성개념 즉 범주이다. 이와 같이 경험에서 독립된 선천적인 두가지 뿌리가 경험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필연적, 보편적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범주의 선형적 연역은 『순수이성비판』의 핵심 부분이다. 그 속에는 선형적 연역의 두가지 중요한 증명이 결합되어 있다: 체계적인 경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한 증명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인식의 불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그것이다<sup>2)</sup>.

칸트는 이 이론을 아주 새로우면서도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론때문에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2판을 완전히 새롭게 썼던 것이다. 35쪽 밖에 안되는 짧은 지면에서 펼쳐지는 범주의 선형적 연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는 『순수이성비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인 것이다<sup>3)</sup>.

연역의 두가지 판 중에서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두 판 사이의 차이가 표현상의 차이를 넘어서 증명 자체의 구조와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연역의 두

1)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1956, B. VII.

2) Henrich, D., Die Beweisstruktur von Kants transzendentaler Deduktion, in "Kant. Zur Deutung seiner Theorie von Erkennen und Handeln". Herausgegeben von Gerold Prauss, Kiepenheuer & Witsch, 1973. S.90.

3) ibid, S.90.

가지 판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을 칸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의 구분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다.

우리가 오성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천명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또 오성 사용의 규칙과 한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성의 순수한 개념들에 대한 연역'이라는 표제 아래서 내가 선험적 분석론 2장에서 행한 연구 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연구에 나는 가장 많은 노고를 치렀고, 생각컨대 무익하지도 않은 연구였다. 상당히 깊은 지반위에 섰던 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순수 오성의 '대상'에 관계해서, 오성의 순수한 선천적인 개념들(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여주며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 까닭에 이 측면의 고찰은 나에게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순수 오성 자체를 그것의 가능성과 오성 자신이 의거해 있는 인식 능력들에 쫓아서 고찰할 것을 노린 것이다. 따라서 순수한 오성 자체를 주관과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나의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의의가 있기는 하되, 중요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오성과 이성이 경험을 떠나서 무엇을 또 어느 정도까지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 '사고하는 능력 그 자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내가 미리 주의해 두어야 할 것은, 주관적 연역이 내가 기대하는 전적인 확신을 독자에게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 책에서 특별히 다룬 객관적 연역은 완전한 효력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험적 연역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뒤에 곧바로 펼쳐지는 칸트의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이 선험적 연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선험적 연역과 도식론 및 원칙 분석론 사이의 필연적 연관은 칸트가 단순한 관념론자나 정합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경험론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적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1판의 선험적 연역에는 부족한 부분과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2판을 다시 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칸트는 1판과 2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은 칸트의 지나친 강변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논문에서 밝혀지겠지만, 1판과 2판은 연역의 구조상 분명히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비록 칸트가 명료함을 위해 2판을 다시 썼다고 해도 칸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구조상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그러한 중요한 구조상의 차이점이 1판과 2판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여러 학자들의 2판 해석에 대한 주장을 살펴 보고, 칸트의 입장과 일치 여부를 하나 하나 검토해서, 칸트 자신이 2판 연역에서 의도하고 목표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 결과 도식론과 선험적 연역의 유사성과 차이점 및 도식론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도 함께 밝혀 보겠다.

우선 1판의 증명을 개괄적으로(이 논문에서는 2판의 증명이 중심 문제이므로 논의의 편의상 1판의 증명을 간단히 언급하겠다.) 살펴 보고 1판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지적하고 난 후에, 칸트가 2판을 다시 쓴 이유를 언급하고 바로 2판의 연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특히 필자는 2판의 범주에 대한 선험적 연역의 구조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선험적 연역에서 칸트가 의도한 바를 드러내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즉 선험적 연역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본질적으로 선험적 연역의 목적 아니 나아가서 칸트의 인식론 전체의 근본 목적을 드러내 준다. 간단히 1판의 연역을 살펴 보고 난 후에 2판의 범주 연역을 다루도록 하겠다.

4) Kant, op.cit. A X VI - X VII.

## 3. 1판의 범주의 연역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권리의 문제이다. 즉 오성의 순수 개념(범주)은 경험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경험에 선천적으로 사용되기에, 우리는 그 사용의 합법성을 증명해야만 한다. 즉 범주가 경험에서 얻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의 인식 대상에 관계되느냐 하는 권리 주장의 증명, 이것이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다<sup>5)</sup>. 그러므로 이는 경험적 연역과는 다르다. 감성 형식인 공간과 시간은 기하학과 산술학이라는 수학적 지식의 확실성이 그 타당성을 보장해 주므로 별도의 타당성 증명은 필요없지만, 범주는 그 타당성을 증명할 실질적 대상이 없다. 공간과 시간은 현상으로서의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 조건이므로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범주는 현상이 없이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범주는 사고의 주관적 조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객관적 타당성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해명해야만 한다.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직관에서 각지라는 종합, 구상에서 재생이라는 종합, 개념에서 재인이라는 종합, 이 세 작용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험의 인식 가능성을 성립시키는 필연적 요소가 바로 이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 세 작용은 범주의 선험적 연역 즉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의 증명이라는 이성 실험(Gedankenexperiment)의 가설인데, 이 작용이 발견될 때는 그 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가 선험적 연역의 필연적인,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 이성실험의 가설은 참된 것으로 증명되고, 범주의 실재성이 인정되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이 증명된다<sup>6)</sup>.

이러한 선험적 연역은 2가지 이성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선천적 통일과 직관을 양극으로 하는 중간 과정, 즉 직관에서 각지라는 종합, 구상에서 재생이라는 종합, 개념에서 재인이라는 종합이 필연적으로 전개되어, 범주의 경험적 인식의 타당성을 증명해 준다.

## 1) 제1실험(위로부터의 연역)

이것은 경험 일반의 가능성 측면에서 수행되므로 순수 통각에서 시작한다<sup>7)</sup>. 우리 인식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표상들에 관해서, 거기에는 우리 자신의 일관된 자기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서 자기 동일성이 선천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표상은 '하나의 의식' 중에서 다른 표상과 결합되어야 나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험적 통각인 이러한 종합적 통일은 '종합'을 전제하며 내포한다. 그래서 이 선험적 통각의 통일은 구상력의 순수 종합에 관계한다. 이러한 구상력의 종합에 관계하는 통각의 통일은 오성이 다. 결국 이러한 인식들은 모든 가능한 현상들에 대해서 구상력의 순수한 종합에 대한 필연적

5) *ibid*, B 117.

6) 김위성, 범주의 선험적 연역 - 칸트 순수이성비판 제 1판의 경우 -, 부산대 사회과학 논문집 제 20집, 1982, 126쪽.

7) Kant, *op.cit.*, A.116.

통일을 내포한다. 이러한 필연적 통일이 범주들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적 인식 능력은 반드시 오성을 내포한다. 그러므로 1실험은 범주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성공한 것이다.

## 2) 제2실험(아래로부터의 연역)

이것은 경험 대상의 인식 가능성 측면에서 수행되는 이성 실험이므로 경험적인 것, 직관적인 것에서 출발한다. 즉 우리에게 최초의 것은 현상이다. 현상이 의식과 결합될 때 지각이 성립하는데, 지각은 현상의 다양을 결합시킬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은 구상력의 작용이다. 이것이 경험적 인식의 타당성의 첫번째 근거이다. 구상력이 지각들에 직접 미치는 작용이 '각지'이다. 그리고 앞의 지각과 뒤의 지각의 계열을 나타내는 능력이 구상력의 재생 능력이다. 표상의 재생은 일정한 규칙(선천적 규칙 즉 하나의 의식 또는 근원적 통각)에 따른다. 이것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의 의식에 모든 것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상의 통일이 객관성을 갖추면 '재인'이 성립한다. 2실험의 결과는 원초적 경험에서 출발하여 경험의 객관적 타당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각지, 재생, 재인이 요구되며, 경험에 대한 범주 사용의 합법성이 즉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성공하게 된다.

## 4. 2판의 범주의 연역

제 1판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서 새로 제 2판의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적 문제이다. 이제 2판의 선험적 연역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2판을 새로 쓴 이유를 밝혀 보자. 그 과정에서 선험적 연역의 목적에 대한 칸트의 근본적인 입장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Henrich가 1969년 한 논문<sup>8)</sup>에서 제기한 선험적 연역의 구조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년간 선험적 연역을 새롭게 광범위하게 해석해 보고자 하는 대상이 되어왔다<sup>9)</sup>.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 관한 한, 2판의 경우가 1판의 경우보다 선험적인 원리를 더 명확히 설명했으나 어쩌나 하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Henrich와 Nowotny<sup>10)</sup>는 2판이 칸트의 의도를 더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Henrich가 주장한 2판의 2단계 증명설을 둘러싼 중요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칸트는 2판에서 연역의 결론을 전혀 다른 두 곳에서 진술하고 있다. 즉 §20과 §26에서 각각 연역의 결론을 말하고 있다. §20에서는 "따라서 주어진 직관에 있어서의 다양은 반드시 어느 범주에겐 종속한다"(B 143).

8) Henrich, D., Die Beweisstruktur von Kants transzendentaler Deduktion, in "Kant. Zur Deutung seiner Theorie von Erkennen und Handeln". Herausgegeben von Gerold Prauss, Kiepenheuer & Witsch, 1973.

9) Baumanns, P., Kants transzendente Deduktion der reinen Verstandesbegriffe(B), erster Teil, Kant - Studien, 1991, Heft 3.

10) Nowotny, V., Die Struktur der Deduktion bei Kant, Kant - Studien, 1981, Heft 4.

§26에서는 “범주는… 따라서 경험의 모든 대상에 선천적으로 타당하다”(B 161)고 진술한다. 그래서 칸트가 2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두번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칸트가 §21에서 말한 것과 바로 모순이 된다”<sup>11)</sup>.

즉 “이렇게 §20의 명제에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의 연역에 대한 첫걸음이 열린다. ...경험적 통일이란, §20에서 말했듯이, 범주가 주어진 직관 일반의 다양에 대해 지시하는 통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경험적 직관이 감성에 주어지는 방식에 의해, 나는 이하(§26)에서 지적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감각의 모든 대상에 관하여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이 밝혀짐으로써 나는 비로소 연역의 의도를 완성할 것이다(B 144, §21)”라는 칸트의 말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겉보기와는 달리 §20과 §26은 각각 다른 결과에 이르는 두가지 논증으로서, 이 두가지 논증을 합해야 비로소 선험적 연역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 사람이 Dieter Henrich이다. 이것이 “범주의 2단계 증명 문제”이다.

Henrich는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Paton과 Erdmann은, 칸트가 서로 다른 두가지 증명을 하고 있다고 오해했다는 것이다. Paton은 제1판 머리말(A X VI -X VII)에 의거해서 §21의 증명은 객관적 연역 -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완수된다 - 이고, §22이하의 주관적 연역 - 범주 사용의 주관적 조건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 - 이라고 주장한다. Erdmann은 제1판 연역에서의 칸트의 말에 의거해서, 위로부터의 연역(제1실험)과 아래로부터의 연역(제2실험)으로서 제2판의 §20과 §26을 해석하고 있다. 우선 Paton의 견해를 살펴보자.

2판에서 칸트는 선험적 연역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한다. 이렇게 바꾼 주된 목적은 1판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1판의 모호함과 어려움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sup>12)</sup>.

이 점에서 Paton은 1판과 2판의 근본적인 구별이 없으며, 단순히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2판의 논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순수한 범주를 취급하는 첫부분과 도식화된 범주를 취급하는 두번째 부분이 그것이다. 첫부분은 범주가… 종합의 원리이며, 범주는 어떤 종류의 감성적 직관에 주어진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에게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두번째 부분은 어떻게 범주가 구상력의 선험적 종합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인간적 감성을 가진 이성적인 존재(인간)에게 즉 시간의 형식과 연관되는 감성을 가진 존재에게 필연적이게 되는가를 보여준다. 보다 간단히 말하면 첫부분은 순수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증하고, 두번째 부분은 오성을 인간적 인식의 기능으로서 가능하게 만드는 주관적 기관(subjective machinery)을 설명해 준다. 2판의 연역을 두 부분으로 구별하는 것은 연역의 객관적 측면과 연역의 주관적 측면사이의 구별이라는 것이 그럴듯한 가정이다. 이제 이 점에서 칸트는 여태까지 혼란되어 있던 것을 풀어 주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21에서 설명되는 것을 객관적 연역이라고 부르고, 주관적 연역은 §22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1판에서는, 칸트가 2판에서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을 구별한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up>13)</sup>

11) Henrich, D., *op.cit.* S.91.

Nowotny도 이 점에 대해서는 Henrich의 견해가 옳다고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결론은 선험적 연역의 두가지 결론이 아니고, 즉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의 차이도 아니고 또 위로부터의 연역과 아래로부터의 연역의 차이도 아니라는 Henrich의 주장 - 왜냐하면 그러한 구별은 1판의 문맥속에서만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 도 Nowotny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12) Paton, H.J., *Kant's metaphysics of experience*, vol. 1, London, George Allen, 1951. p. 409.

13) *ibid.* pp. 501 - 502.

라고 말한다. 여기서 Paton의 주장은 1판과 2판 둘 다 같은 내용이며 둘 다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나누어 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Paton의 주장은 1판과 2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단지 1판의 모호하고 어려운 측면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2판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Paton은 계속해서 칸트가 2판에서 1판의 논점을 보다 분명하게 한 것이므로, 2판의 설명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1판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어떤 것도 2판에 덧붙여진 것이 없다는 칸트의 말은 정당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2판에서 칸트가 1판에서 표현한 견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은 근거가 없으며, 1판과 2판의 차이는 강조의 차이일 뿐이라고 Paton은 주장한다<sup>14)</sup>

객관적 연역은 모든 이성적인 유한한 존재에 대해 순수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한다. 유한한 이성적인 존재(인간)에게는 인상을 받아 들이는 수동적 능력만이 있다. 인간의 감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다른 종류의 감성은 다른 인상을 받아 들일지도 모른다. 즉 시간과 공간의 형식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범주는 경험에, 어떤 종류의 감성에 의존하는 경험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이러한 Paton의 견해는 1판과 2판 모두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판과 2판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견해를 Erdmann도 가지고 있다. 이제 1판에 대한 Erdmann의 견해를 살펴보자.

범주는 감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제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범주는 감성적 직관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즉 어떻게 우리가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선천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범주의 선천적인 설명이란, 범주를 감성의 대상과 연관시키는 것이며 칸트는 이를 범주의 선천적 연역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범주의 탐구에 대한 논증에서 칸트는 서론에서(필자가 앞에서 인용한 구절)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그런 탐구를 칸트는 두 가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으로 즉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나눈다. 첫번째 부분은 아주 중요하지만 그 책의 주요 부분에 본질적으로 속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고하는 능력 그 자체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취급한다. 따라서 오성의 가능성과 오성이 근거하고 있는 인식 능력에 관해서 탐구한다. 거기에 비해 두번째 부분은 그 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순수오성개념의 객관적 타당성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칸트는 이러한 두가지 연역의 형식들이 그 설명속에 서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오히려 범주 탐구의 두 측면이라고 불렀다. 즉 객관적 연역의 사유 과정에 대한 언급이라는 측면과 연역 자체를 최초로 실행한다는 의미에 관한 예시라는 두 측면이다. 결국 이것의 내용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보여 준다. 즉 객관적 연역은 주관적 연역을 탐구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구분은 엄밀한 것이 아니다. 후자속에는 객관적 연역이 포함되고, 이것은 오직 주관적 연역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어 진행된다”<sup>16)</sup>.

Erdmann은 1판의 연역이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나누어 진다는, 칸트가 서론속에서 한 말을 받아들여 2판에서도 1판의 칸트의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새롭게 잘 맞추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판의 증명의 어떤 요소도 2판 증명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출발점에서 대립적인 요소로부터 시작되는 두 가지 논증의 계열이 여전히 존재한다. 즉 §§15-21은 첫

14) *ibid*, pp. 500 - 501.

15) *ibid*, p. 526.

16) Erdmann, B., *Kants Kritikismus in der ersten und in der zweiten Auflage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Leipzig, 1878. SS.23 - 24.



증명 과정을, §26은 두번째 증명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 증명 과정에서 칸트는 다양을 규정하는 표상들과 결합하는 작용으로서, 모든 분석에 선행하는 종합, 통일적인 오성 활동을 규정하는 종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이런 종합을 필연적이게 하며, 따라서 모든 다양이 필연적으로 그것과 연관되는 그런 통일은 바로 자기 의식의 통일이며, 이 자기 의식의 통일이 모든 표상을 비로소 나의 표상들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직관의 다양은 필연적으로 범주아래에 종속된다<sup>17)</sup>.

Erdmann은 이어서 두번째 증명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간다.

첫번째 증명은 곧바로 통각의 통일로부터 시작된다. 그 통일은 오성의 범주를 통해서 직관속으로 내려가는 반면에, 두번째 증명은 다양이 경험적 직관속에서 주어지는 방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다양의 종합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들과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공간과 시간은 형식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또한 직관들로서, 즉 직관의 다양을 직관적 표상속으로 선천적으로 합성시키는 것으로서 주어진다. 그러므로 공간과 시간은 이미 종합의 통일을 전제한다. 따라서 현상의 다양은 단지 결합하는 능력을 선택하는 결합의 범칙 아래에 속한다. 그러므로 범주는 현상의 총괄에 즉 자연에 선천적 법칙을 부여하는 개념이며,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은 현상의 감성적 직관의 형식들이다<sup>18)</sup>.

결국 지금까지의 선험적 연역에 대한 모든 해석은(객관적 연역 - 주관적 연역이건, 위로부터의 연역 - 아래로부터의 연역이건) 제 1판의 구별 방식을 제 2판에 무리하게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Henrich는 주장한다. 칸트는 1판의 모호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 2판을 새로 썼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와 체계상 차이점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1판과 2판을 무조건 동일한 구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Henrich의 주장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칸트의 선험적 연역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탁월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Henrich의 2단계 증명설은, §20의 'Einer' 라는 단어가 '하나의' 라는 뜻과 '통일' 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인데, 'Einer' 를 '내적 통일을 갖춘 직관' 으로 해석하면, §20은 좁은 범위의 제한된 연역이고 §26은 그 범위가 확장된, §20의 제한이 철폐된 연역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Henrich의 견해를 인용해 보자.

그러나 20, 21절과 심지어 26절의 문장들로부터 두가지 증명 단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나타난다... 칸트는 분명히 §20에 대한 증명 성과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시하고 있다: 즉 칸트는, 직관들이 이미 직관들로서 통일성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서만, 직관들은 범주아래에 속한다고(B143)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칸트는 이와 같은 제한을 <Also ist alles Mannigfaltige, sofern es in 'Einer' empirischen Anschauung gegeben ist, in Ansehung einer der logischen Funktionen zu urteilen bestimmt, durch die es nämlich zu einem Bewußtsein überhaupt gebracht wird.>이라는 표현에서 부정관사를 대문자로 씌으로써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어에서와는 달리, 독일어에서는 부정관사와 통일성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칸트는 대문자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임의적인 직관들에 대해서, 다른 직관들에 대해 직관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들의 내적인 통일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냈던 것이다<sup>19)</sup>.

17) *ibid*, SS.230 - 231.

18) *ibid*, S.231.

19) "칸트시대에는, 수사<ein>과 부정관사 <ein>을 대문자를 사용해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칸트는 주로 이러한 수단을 이용했다. 칸트가 텍스트를 써내려가는 동안에, 그는 통일성을 뜻하면서 유일성을 뜻하지 않을 경우의 논점을 첫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것으로는 분명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추측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그다음에, §20의 해석을 비로소 명백하게 해주는 주석을 §21에 덧붙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가 Henrich가 자신의 2단계 증명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한 'Einer' 의 해석이다.

§20의 증명 성과는 그러므로 오직 “이미 통일성을 포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직관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언제나 통일성이 있는 곳에서 범주에 적합하게 생각될 수 있는 연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로는, “어떤 영역에서” 통일적인 직관들이 발견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 것도 결정되어 있지 못하다.

§20에서의 제한은 §26과 관련된 텍스트와 연관이 있다 : §20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이 즉, 이 절에서는 (§26) 미리 만들어진 제한(통일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에 범주가 적용된다는 제한)은 철폐된다는 선언이 쓰여 있다 : 연역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범주가 우리 감각의 ‘모든’ 대상에 적용된다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B161). 이러한 일이 또한 실제로 이 절에서 (§20) 일어나는데, 더우기 다음과 같은 고찰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난다 : 우리가 언제나 통일성을 발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통일성이 범주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고, 범주와 관련되어서 결정된다. 이제 우리는 그러나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표상들의 경우에는 직관들을 가지는데, 이 직관들은 통일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감각들에서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직관들은 우리의 감성의 형식들 속에서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 이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표상들도 주어질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주어진 다양한 예외없이 범주아래에 종속된다는 것을 명백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역에서 문제가 되는, 경험과 의미있게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주의 ‘무제한적인’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역의 증명 목표에 비로소 도달하게 된다<sup>20)</sup>.

이러한 Henrich의 주장에 대해 Nowotny는 그러한 Henrich의 주장은 §20의 주석과 모순되며, 선험적 연역의 전 증명 과정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한다. 즉

1. 2판의 연역의 구조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한가지 증명이라는 Henrich의 견해는 상당히 옳지만, 그러나 그러한 2단계 증명 이론의 근거가 단순히 Einer라는 글자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 근거는 터무니없이 빈약하다. 만약 Henrich의 주장이 옳다면 그 뒤에 나오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구절에도 대문자 Einer가 계속되어 표현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론 부분에서도 여전히 소문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범주들이 적용되는 직관들의 영역을 ‘제한’ 하는 것은 연역의 첫 부분과 심한 모순이 일어난다. 칸트는 ‘모든’ 감각적 직관들은 범주아래에 종속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3. 칸트가 선험적 연역의 전 증명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21에서 발견된다. Henrich는 이것을 오해했다. 즉 이 전체적 증명 구조를 설명하는 §21은 사실상 §26 즉 범주의 실질적 적용과 관련되고 있는, 인간적인 감성적 직관에 적용되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Henrich는 그 구절이 자신이 생각한 그러한 ‘제한’을 취급하고 있다고 오해했던 것이다. 사실 그 문장은 §26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범주를 설명하느라고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21에서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21에서는 오히려 범주의 보편적인, 추상적인 특징이 다루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Nowotny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칸트가 연역의 첫부분에서는 인간적인 감성 형식을 도외시한채 범주의 연역을 ‘직관 일반’에 관해서 수행한다. 칸트는 순수오성개념의 순수한 존재론적 지위를 고려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먼저 보편적인 측면에서 수행한다. 이것이 바로 §20의 제목 ‘모든 감성적 직관은 범주에 종속된다...’는 제목으로 표현된다. 그

20) Henrich, op.cit. SS.93 - 94.

리고 나서 §26에서는 특수한 인간적인 직관으로의 이행이 수행된다. 이러한 이행은 §21의 첫부분에서 나타나며, 그리고 난후 다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즉 “...선험적 연역에 있어서는 범주가 가능한 까닭은 ‘직관 일반’ 대상에 관한 선천적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표시하였다(§§20.21). 우리는 이제야 항상 오직 ‘우리의’ 감각에만 나타나는 대상을 범주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B 159 – 160)<sup>21)</sup>.

필자의 견해로는, 먼저 이 오성의 구조에 대한 분석을 칸트가 수행하는데, 이것이 형이상학적 연역이다. ‘순수오성개념을 발견하는 실마리’라는 제목아래 1, 2, 3 세가지 절이 바로 형이상학적 연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범주가 판단표로부터 도출된다. 이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직관 일반’과 관계하는데, 이것이 선험적 연역의 1단계 증명이고, 범주를 ‘인간적인 직관’으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줄여 적용시켜 그 타당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2단계 증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2판을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내용상 전혀 들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Ewing은 2판의 연역에서는 주관적 연역이 빠져 있으므로, 1판의 주관적 연역과 연결시켜야 제대로 이해가 된다고 주장한다. 즉 2판에는 주관적 연역이 없다는 것이다<sup>22)</sup>.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있다. 1판은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으로 구분된다고 칸트 자신이 서론에서 밝힌 것을 필자가 앞에서 인용했다. 그런데 2판의 경우 주관적 연역을 빼고 객관적 연역만을 취급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2판 객관적 연역은 두 부분으로, 즉 하나는 직관 일반에 범주를 적용시키는 보편적 이념적 논리적 증명이고, 또 하나는 범주를 구체적인 인간적 직관에 적용시키는 실재적 증명이라는 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판과 2판의 선험적 연역의 증명은 그 구조가 전혀 다른 것으로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칸트 자신이 서론에서 주장한 1판과 2판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지만,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험적 연역은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2판 연역에 대한 증명의 두 부분은 두 가지 상이한 직관 영역과 관련이 된다. 즉 첫째로, 모든 가능한 궁극적인 직관 형식들과 연관되는 ‘직관 일반’과 관련되고, 둘째로 오직 그 범위가 첫째 것 보다 더 작은 ‘우리의 감성적 직관’과 관련이 된다. 즉 ‘제한’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범주가 적용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강조점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직관에 적용되는 것이지, 헨리히의 주장처럼 ‘모든’에 강조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헨리히는 그와 반대로 앞에서는 제한을 뜻하는 것으로, 그리고 뒤에서는 그 제한이 철폐된다는, 즉 ‘모든’ 직관에 적용된다는 오해를 한 것이다. 그는 증명의 2단계설을 올바르게 주장했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Einer의 해석에서부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므로 필자는 2단계 증명설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 근거로 제시한 첫 단계의 ‘제한’에서 둘째 단계의 ‘제한의 철폐’로의 이행은 잘못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로 첫째 단계는 특정한 감성 형식을 도외시한채 범주의 연역을 ‘직관 일반’에 수행하고, 두번째 단계는 범주를 ‘우리 인간의 직관 형식’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

21) Nowotny, op.cit. SS.272 – 273.

22) Ewing, A.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Chicago univ., 1968. p.70.

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 되어 구체적으로 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Henrich는 2단계 증명설이라는 아주 탁월한 2판 범주에 관한 해석 방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Einer라는 단어의 해석에 의존했기 때문에 2판의 내용을 거꾸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 결과 그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올바른 2판 해석은 범주의 보편적 타당성으로부터 인간적 구체적 직관으로 범주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후에 그 적용의 구체적인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이다. 그러므로 칸트가

진리의 기준은 오직 진리의 형식에만 즉 사고 일반의 형식에만 관계하고, 그런한에서는 완전히 정당하다. 그러나 그런 기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어떤 인식이 논리적 형식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즉 자기모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대상과 여전히 모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리의 순논리의 기준 즉 오성 및 이성의 보편적, 형식적 법칙과 인식과의 일치는 확실히 불가결한 조건이요 따라서 진리의 소극적 조건이기는 하나, 그 이상의 것, 즉 내용에 관한 오류를 발견하는 시금석을 갖지 못한다”<sup>24)</sup>.

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식적이고 정합적인 진리만으로는 객관적 진리를 규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없으므로 참 거짓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이 바로 독단론자들이다.

무릇 일반 논리학은 내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는다. 오직 오성과 합치하는 형식적 조건 즉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형식적 조건만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일반논리학을...지식 확장을 위해 사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空談에 귀착될 수 밖에 없다<sup>24)</sup>.

이어서 칸트는 내용이 있는 논리학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못할때는 경험적 인식이 완전히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선험적 논리학에서 오성의 순수한 인식의 요소들을 다루는 부분이, 대상을 언제나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들을 다루는 부분이 선험적 분석론이요,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무릇 인식이 동시에 그 모든 내용을 즉 어떤 객관과의 관계를, 따라서 모든 진리성을 상실할 때, 그러한 인식은 진리의 논리학(선험적 분석론)에 모순될 수 밖에 없다... 오성의 순수한 인식과 원칙을 단독으로 또한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사용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도 않고 주어질 수도 없는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위협에 빠진다....우리가 순수한 '오성만을' 가지고 '대상들 일반'에 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모험을 한다면 선험적 분석론은 오용되는 것이다. 이때의 순수한 오성의 사용은 변증적이다. 이런 선험적 가상에 대한 비판이 선험적 변증론이다<sup>25)</sup>. (''는 필자가 강조한 것임)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결코 오성만의 단독적인 사용으로는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설명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독단론의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칸트의 철저한 '적용'의 문제가 밝혀지게 된다. 즉 인간적 직관에 적용되지 않는 범주는 비록 논리적으로 진리라 하더라도, 정합적인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무의미하다는 즉, 인간적인 경험적 지식에는 쓸모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칸트가 철저하게 범주가 인간의 직관 형식과 연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선험적 연역의 분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칸

24) Kant, op.cit. B 88.

25) ibid, S. 86.

25) ibid, SS. 87 - 88.

트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칸트가 선험적 연역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이러한 주장을 Henrich는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험적 연역을 거꾸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2단계 증명을 오성의 규칙을 적용해야 할 실제적인 대상과 올바르게 관계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즉 그는 선험적 연역과 도식론 및 원칙의 분석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Henrich의 잘못이다.

결국 2판의 선험적 연역은 헨리히의 2단계 증명과는 내용이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선험적 연역의 해석에 대한 견해에 동의한다. 즉 1단계 증명은 통각과 직관일반의 개념내부에서 양극의 논리적 무모순성, 정합성을 연결하는 이념적 증명이다. 2단계 증명은 오성과 직관이 서로 다른데도 감성적 직관이 어떻게 범주에 귀속되는가를 해명하는 실재성에 관한 증명이다. 1단계의 논리적 증명과 2단계의 실재성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완결된다. 즉 칸트는 이념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을 구별하여 전자를 1단계 증명에서 수행하고, 후자를 2단계 증명에서 수행하는 2단계 증명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sup>26)</sup>.

### 1) 제1단계 증명

범주의 선험적 연역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는 오직 범주에 의해서만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다. 오직 그 경우에만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경험 내용을 분석하는 경험적 작업이 아니라, 경험의 형식적 구조를 분석하는 논리적 작업이다. 이는 경험과 독립된 것이므로 하나의 이성 실험이다. 감성적 직관에서 주어진 다양은 통각의 근원적인 종합적 통일에 반드시 종속된다. 다양으로부터 통각의 통일로 가게하는 역할은 오성의 작용 즉 판단들의 논리적 작용이다. 주어진 직관의 다양성 판단 작용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는 한, 그 판단 작용이 바로 범주이다. 그러므로 주어진 직관에 있어서의 다양은 반드시 어느 범주에건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주의 역할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기에 선험적 연역이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범주들은 감성에서 독립해서 오성중에서만 발생하는 고로 위의 연역은 다양성 경험적 직관에 주어지는 방식을 도외시켰다. 이것을 전제하면 범주의 선험적 연역이 이처럼 잘 성공할 수 있음을 이념적으로 보여준 것이므로, 곧바로 경험적 직관이 감성에 주어지는 방식을 통해 감성의 대상에 범주가 타당하다는 증명 즉 “실질적” 선험적 연역인 2단계 증명이 뒤따른다<sup>27)</sup>.

### 2) 제2단계 증명

칸트는 경험적 직관이 주어지지 않으면 범주는 쓸모없는 것이 된다고 한다. 즉 1단계 증명은 완전히 쓸모없게 된다. 그러므로 논리적 필연성에 실재성이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범주가 가능한 경험 영역 즉 감성적 직관과 관계할 때만 우리의 인식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 범위를 벗

26) 김위성, Kant의 선험적 연역과 Popper의 반증 가능성, 경북대 박사 논문, 1983. 36쪽.

27) 김위성, 앞의 논문, 31쪽.

어나면 객관적 실재성을 얻을 수 없다. 만일 1단계 증명이 2단계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완전한 증명이라면, 그 결과는 §24에서 말하고 있는 '지성적 종합' 이 된다. 그러나 자발성으로서의 오성에서는, 감성적 직관의 다양을 통각이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종합을 '형상적 종합' 이라고 한다. 이 형상적 종합이 통각의 근원적인 통일에만, 즉 범주에서 생각되는 통일에만 상관할 때, 구상력의 선험적 통일이라 불리며 단순한 지성적 종합과는 구별된다.

구상력은 직관중에 대상이 없는데도 대상을 표상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감성과 오성 양쪽에 다같이 소속되는 특징을 이룬다. 스스로 직관이 아니면서도 직관과 함께 주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오성에는 속하지 않는 '형식적 직관' 즉 '구상력' 의 감성쪽 부분은 우리들의 감성적 직관을 오성과 연결시키는데 가장 알맞다. 왜냐하면 구상력은 오성에도 소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범주가 직관의 다양에 적용되는 것이 가능해지며 §26에서 이러한 범주의 실질적 연역이 이루어져서 범주의 2단계 증명이 완결된다. 이 부분은 곧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를 요약하면, 2판의 연역은 2단계 증명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1단계는 통각과 직관 일반사이의 논리적 무모순성을 주장하는 이념적 증명이며, 2단계 증명은 오성과 직관이 다른데 어떻게 감성적 직관이 범주에 귀속되는가를 밝히는 실재성에 관한 증명이다. 1단계의 논리성과 2단계의 실재성이 결합되었을 때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마침내 2판에서 완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Henrich는 2단계 증명을 범주의 '제한' 에서 그 '제한의 철폐' 로 잘못 해석했다. 이에 비해 제 1판은, 1실험(위로부터의 연역)과 2실험(아래로부터의 연역)에서 이러한 두 차원(이념성과 실재성)을 구별하지 않고, 그것을 동시에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을 취한 결과 어려움이 많아, 칸트는 2판을 다시 쓰게 되었으며, 여기서 이념성과 실재성을 구별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험적 연역의 전체적인 문제 제기의 핵심을 찌르는 F. Heinemann의 말로 이 분석을 끝마치겠다. 『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선험적 연역) 오직 연역의 사실(daß)만을, 그러나 여기에서는(도식론)는 연역의 방법(wie)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선험적 연역과 도식론의 중요한 차이이기 때문이다. "방법(wie)" 과 더불어서, 동시에 직관 일반의 다양으로부터 우리의 직관의 다양으로의 이행,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으로의 이행이 수행된다. 즉 연역 章의 두번째 부분이 요구했던, 그러나 완성시킬 수가 없었던 이행이, 방법(wie)과 더불어, 동시에 수행되는 것이다<sup>28)</sup>.

그러므로 선험적 연역에서 도식론으로 이행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도식은 범주를 제한한다. 즉 도식은 범주를 오성 바깥에 있는 조건들로 제한한다. 다시 말해 범주는 규칙(아마 규칙에 대한 보편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지, 범주가 적용되어질 사건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범주의 기능이, 도식을 통해서 대상이 순수오성개념과 일치될 수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그 도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험적 도식은 한편으로는 범주와,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과 관계해야만 한다는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sup>29)</sup>.

28) Nowotny, op.cit. S.279.

29) Mudroch, V., Die Anschauungsformen und das Schematismuskapitel.Kant - Studien, 1989, Heft4.

왜냐하면 논리적 정합성은 진리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나 충분 조건은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질적 내용이 없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식은 그러므로 오성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고 반드시 우리의 직관과 연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칸트의 선험적 연역을 분석해 볼 때 드러나는 칸트의 철학적 입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험적 연역 바로 뒤에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 즉 개별적으로 범주를 적용시키는 작업이 뒤따르는 것이다.

## 5. 결 론

결국 1판의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에 대한 칸트의 언급은 칸트 자신의 말 즉 1판과 2판은 내용에서 전혀 보탬도 없고 같은 내용이며, 명료하게 하기 위해 2판을 새로 쓴 것이라는 칸트의 주장은 올바른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 아마 이는 칸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 같다. 2판은 단지 선험적 연역에 대한 두 가지 증명이 아닌 한가지 증명이며, 그것은 주관적, 객관적 연역이라 불릴 수 없다. 단지 범주를 직관의 다양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이 1단계 증명이며, 범주를 인간적 직관의 다양에 제한한 것이 2단계 증명이다. 굳이 따지자면 칸트는 1판의 범주에서 '대상'과 관계하는 연역을 2판에서 다시 나누어서 범주를 '대상 일반'에 관계시키는 것이 1단계 증명이고, 범주를 '인간적 직관의 대상'에 제한시킨 것이 2단계 증명이다.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1판의 연역과 2판의 연역의 구조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칸트 자신의 말(앞에서 인용한 AX VII - X VIII의 구절 그리고 BX L II의 구절<sup>30)</sup>)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칸트의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1판과 2판의 차이성과 우월성 문제 및 2판의 증명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필자는 Henrich의 2단계 증명설의 타당성을 살펴 보았다. 필자의 견해로는, 그의 주장 중에서 2단계 증명설의 형식은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내용은 헨리히의 견해와는 반대로, 1단계는 모든 직관 일반에 대해 범주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사실(dab) 다루고 있으며, 2단계는 그러한 타당성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wie)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실은 도식론과 원칙의 분석론을 실행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의 또는 암시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 그런데 1판의 연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또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칸트가 새로이 2판의 연역을 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판을 2판으로 새

30) Kant, op.cit. X L VII - X L IV. "그러나 이번 수정은 독자에게 작은 손실을 끼친다. 이 손실은 책의 부피를 아주 크게 하는 일이 없이는 막을 수 없었다. 즉 전체의 완전성에 본질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으나, 다른 목적에 유용하기 때문에, 독자가 상실하기를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나는 삭제하고 혹은 줄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로 이제야 알기 쉽게 된 서술로 길을 터 주었다고 나는 기대한다. 이 서술은 필경 명제들과 심지어 그 증명 근거들에 관해서 절대로 아무런 변경도 하지 않았으며, 논술 방법에 있어서는 삽입만으로 완수할 수 없는 그만한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초판(1판)의 것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더라도 임의로 초판을 참조해서 보충할 수 있는 이 작은 손실을 이 재판(2판)이 훨씬 알기 쉽다는 점이 압도적으로 보상한다고 나는 기대한다... 이 책에서 최초에는 피할 수 없었던 모호한 점의 해명과 전체에 대한 변고는 이 책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한 인사들에게서 나는 기대한다."

로 고친 내용이 단순히 1판과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뿐, 내용이나 구조의 차이는 없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서 2판의 우월성을 필자는 주장한다. 나아가 2판의 결론이 서로 다른 곳에서 두번씩 나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이었으며, 이러한 2판의 연역은 칸트의 철학이 단순히 관념적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실재적 구체적 경험이 가능해야 함을 칸트가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근대 독단론의 입장과 무원칙의 경험만을 주장하는 경험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제까지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범주가 직관의 다양에 적용되어야만 범주가 의미있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범주와 직관이 어떻게 관계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범주의 선험적 연역도 결국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쓸모도 없는 헛수고에 불과하게 된다. 이질적인 이 범주와 직관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구상력의 산물인 선험적 도식이다. 그러므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은 필연적으로 그 구체적인 적용을 따지는 도식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번 논문에서 필자는 선험적 연역과 도식론의 관계와 그 구조에 대해서 고찰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Baumanns, P., Kants transzendente Deduktion der reinen Verstandesbegriffe(B), erster Teil, Kant - Studien, 1991, Heft 3.
- 2) Erdmann, B., Kants Kriticismus in der ersten und in der zweiten Auflage der Kritik der reinen Vernunft, Leipzig, 1878.
- 3) Ewing, A.C.,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Chicago University, 1938.
- 4) Fernandez, A.L., Der Gegenstand der Vorstellungen und die transzendente Apperzeption, Kant - Studien, 1990, Heft 3
- 5) Henrich, D., Die Beweisstruktur von Kants transzendentaler Deduktion, in "Kant. Zur Deutung seiner Theorie von Erkennen und Handeln". Herausgegeben von Gerold Prauss, Kiepenheuer & Witsch, 1973.
- 6) Kant, I., Kritik der reinen Vernunft, Felix Meiner, 1956.
- 7) Mudroch, V., Die Anschauungsformen und das Schematismuskapitel. Kant - Studien, 1989, Heft4.
- 8) Nowotny, V., Die Struktur der Deduktion bei Kant, Kant - Studien, 1981.
- 9) Paton, H.J.,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vol.1, London, George Allen, 1951.
- 10) Sollberger, D., Über einige "Dunkelheiten" in Kants Kategorienduktion, Zeitschrift für philosophische Forschung, Band 48, 1994, 1.
- 11) 김위성, 범주의 선험적 연역, 부산대 사회과학 논문집 20집, 1981.
- 12) 김위성, Kant의 선험적 연역과 Popper의 반증 가능성, 경북대 박사 논문, 1983.